**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21-01-28**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상에 맞춰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미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맘에 없는 소리도 하고,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어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잃고 있었다. 나는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순간 느꼈다. 내 마음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작정 영화를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진통제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제는 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집에 있는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의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보기 시작했다. 책은 내가 딱 좋아할 만큼의 분량이었고 이 책을 이틀에 걸쳐 읽게 되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의 과정을 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는 다양한 사람의 고민에 대한 해결 과정이 담겨 있는데 꼭 자신의 고민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편식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다가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집중해서 읽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뻔뻔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자신을 잃고 있었던 이유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지 않겠다고 원래 했던 다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